

## 사람들이 컬렉션이다!

---

신승수 ((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소장)

### 주요 약력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및 네덜란드 베를라헤 건축대학원(Berlage Institute)을 졸업하였으며, 공공성에 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부터 (주)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를 설립 · 운영하고 있으며,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MP, 성균관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1회 젊은건축가상(2008),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10), 한국건축문화대상(2013)을 수상하였고, 2010년에는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전시 작가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슈퍼 라이브러리』, 『공존의 방식』, 『미술관의 입구』, 『공공을 그리다』 등이 있다.





# 사람들이 컬렉션이다!

- 오늘의 공공건축/공공디자인 -

신승수 / 디자인그룹오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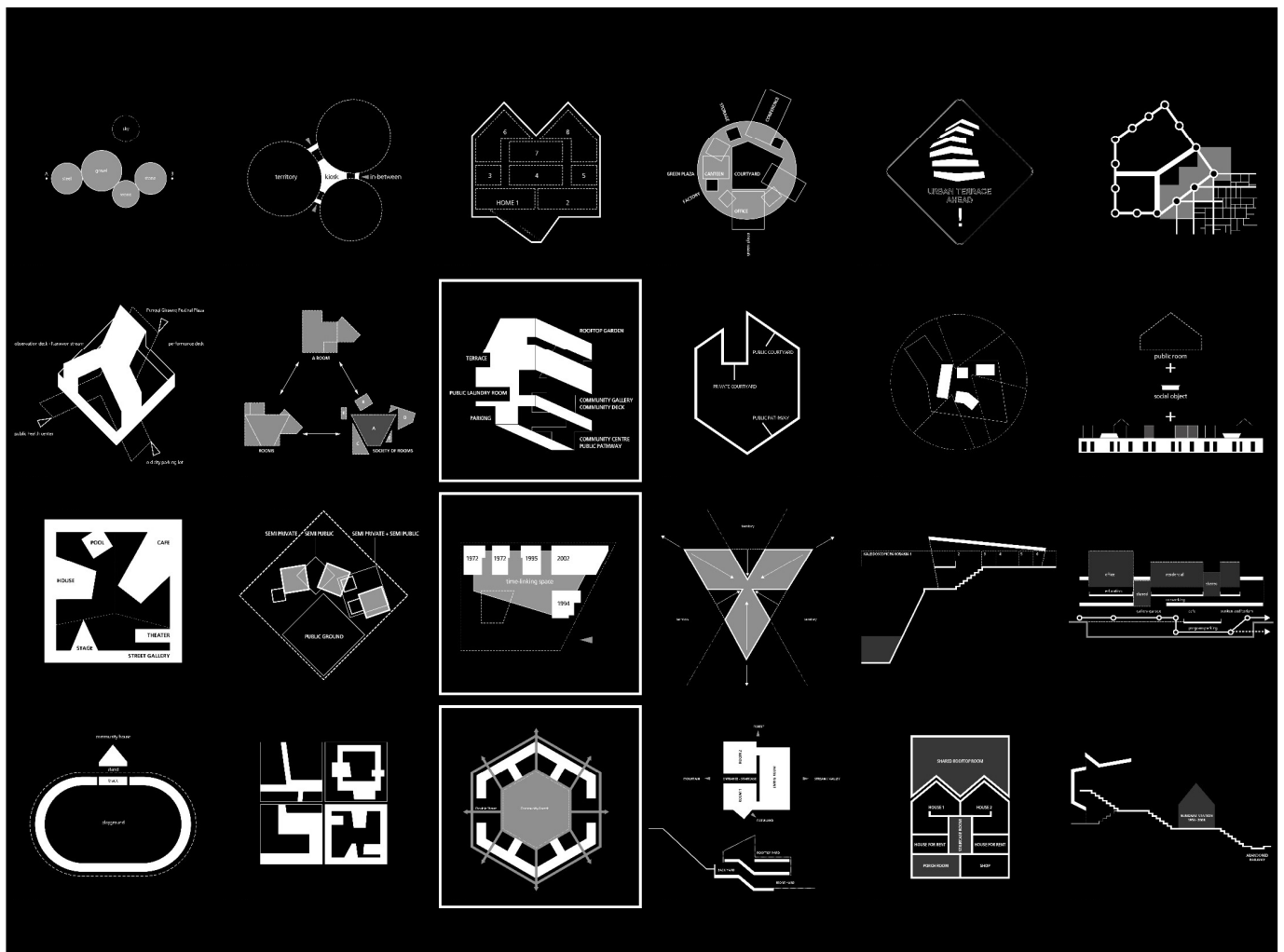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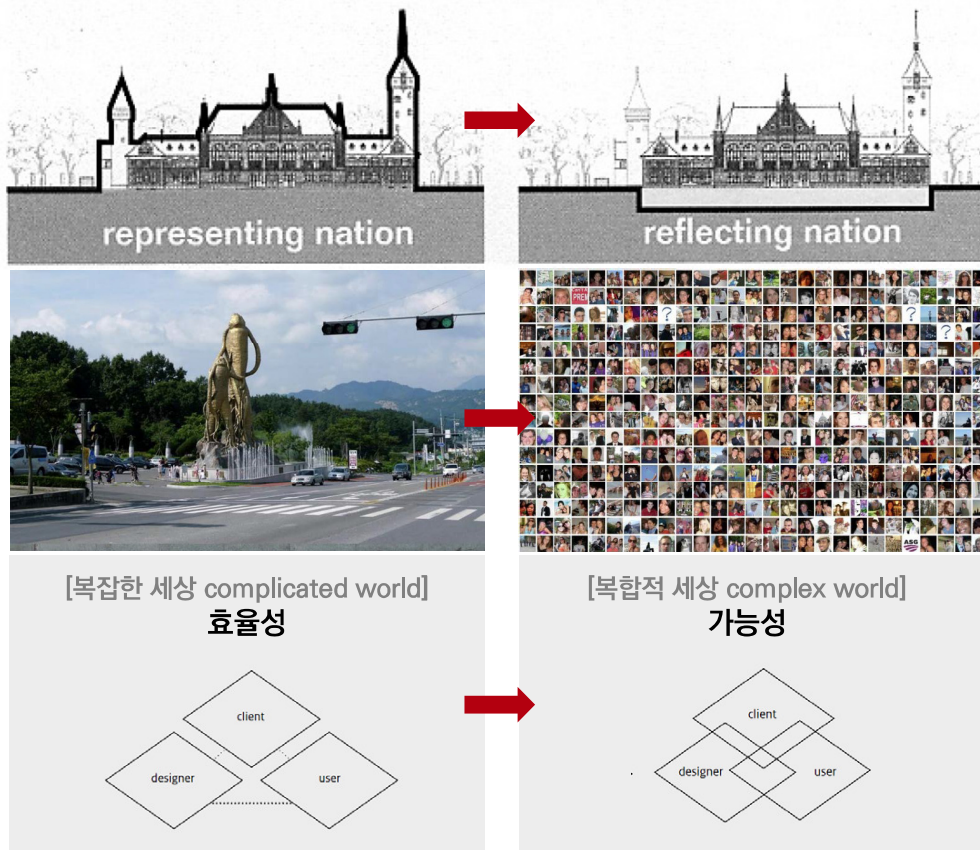
공공:  
열어서 함께 나누는 일

디자인:  
주어진 혹은 발견된 유·무형의 재료(material)를 구체적인 활동과 삶의 형태로 조직하는 일

공공디자인:  
여러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들과 함께, 주어진 혹은 발견된 유·무형의 재료(material)를 구체적인 활동과 삶의 형태로 조직하는 일

公 open	共動 moving together	<del>滅私奉公</del> dualism
共 share	開新 initiating newness	活私開公 plur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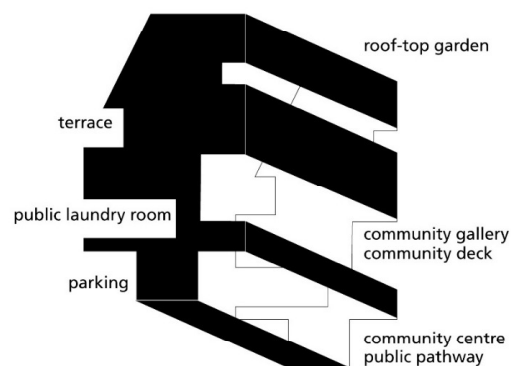
나누어진 형태(form)를 표상하는 디자인으로부터 나눔의 방식(process)을 프로그램하는 디자인으로



문정동 보금자리주택 Munjeong Public Rental Housing  
Extruded Community : 2011.12~2012.05



생각의 그림 ideogram



**길을 품고 도시로 열린 집:** 턱없이 비싼 집값과 경제불황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보통 '공공임대주택'하면 외곽의 주거 지역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많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 주변 지역으로부터 소외되기 쉽습니다. 집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인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시행이 부담스런 대규모 사업이라 공급이 더디기도 합니다. 문정동 공공원룸주택 프로젝트는 이러한 대규모 임대주택 대신 기존 생활권을 해치지 않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건물이 들어선 곳은 장방형으로 좁고 긴 공터였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보니 남쪽 인근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보행로로 쓰고 있었고 한켠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공간들을 없애지 않으려고 건축물 전체를 한 층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다양한 삶의 단면이 압축된 커뮤니티:**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건물이어서 이 주택에는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 많습니다. 1층에는 커뮤니티 센터, 텃밭으로 이어지는 보행로가 있고, 2층에는 세탁실과 공용 락커가 비치된 커뮤니티 휴게 데크가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이용하는 1층의 커뮤니티 공간은 가장 깊숙한 곳에 두어 마주치는 기회를 높였고,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2층의 세탁실은 도로쪽에 두어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를 꾀했습니다. 3층에서 5층까지는 주변 풍경을 향해 열린 갤러리형 복도가 이어지는데, 층마다 복도의 형태를 다르게 해 개성을 주었습니다. 옥상에는 공용 정원을 마련했지요. 복도를 걷다 보면 이런 공용 공간을 쉽게 알아보고 접근할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인 공간이면서도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문정동 공공원룸주택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공간을 확장하거나 변경하기 쉽도록 벽식 구조 대신 기둥과 보 구조를 사용했고, 복도에 불박이 창고와 미서기 문 등을 설치해 자투리 공간을 쓸모 있게 활용했습니다. 이런 개별공간들이 오밀조밀 모여,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을 모자이크 조각처럼 보여 줍니다. 문정동 공공원룸주택은 그 외형처럼 공동의 삶이 음각되고 개별적 삶이 양각된 커뮤니티(extruded community)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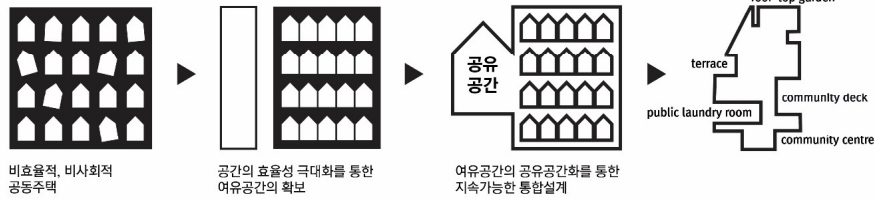


## 생각의 연결 diagram

$$1 = 0 + 1$$

지속가능한 하나는 낭비의 제로 더하기 통합된 하나다.

A sustainable one is a waste zero plus an integrated one.



### 삶의 단편이 드러나는, 열린 공유공간 만들기

① 인근 주민들(대지 남측면에 인접한 다세대 주민)과 공유하는 공공보행로와 썬지경적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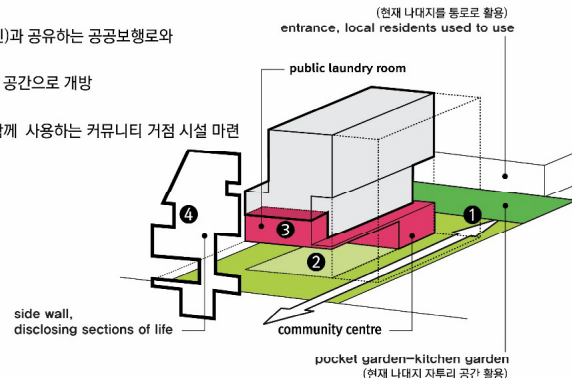
② 건물 전체를 들어올려 지상층 전체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 (공사비 절감 - 임대료 감소)

③ 단지 내외부 경계에 거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거점 시설 마련

- 세탁실/서재: 가로변 2층
- 커뮤니티센터/AV룸/PC방: 대지 내부 1층

④ 층별로 테마화된 공유공간 설계

- 1층: 커뮤니티센터
- 2층: 세탁실 및 휴게데크
- 3층: 락커룸
- 4층: 테라스
- 5층: 다락



## 질문들: 누가 어떤 조건에서 살게 될 것인가?



사회초년생 2030세대 - 1인 거주자 / 사회초년생 신희 부부 - 2인 거주자

<p><b>아무리 원하지만 너무 좋아요.</b></p> <p>집에 있으면 답답하죠. 임대료가 비수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넓은 방을 찾아요.</p>	<p><b>집 때문에 너저분해요. 가끔 필요하다고 버릴 수도 없고...</b></p> <p>저는 거실에 보드 타는 게 취미인데, 가끔 쓰는 장비들이 평소에는 애물단지예요.</p> <p>집이 사는지, 사람이 사는지...</p>	<p><b>비정규직이에요. 살려면 아껴야 해요.</b></p> <p>이것도 집이라고 기본 유지비가 어느 정도는 되네요.</p> <p>전기세, 난방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라면 한 봉에 얼마라도 적금 하나 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깝죠.</p>	<p><b>혼자 사는 살림이더라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하더라고요.</b></p> <p>세탁기, 빨래대 같은 각종 살림 살이를 안 살 수가 없어요.</p> <p>꼭 필요한 것들만 마련한다고 했지만, 돈도 돈이고, 혼자 사니, 혹시 모를 응급 사고가 걱정될 때도 있고요.</p>	<p><b>혼자 사는 게 편한데, 가끔 외롭기도 하고 안전이 걱정되기도 해요.</b></p> <p>비좁은 방에 혼자 있으면, 가끔은 외롭기도 한 게 사실이죠. 원룸별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혼자 사니, 혹시 모를 응급 사고가 걱정될 때도 있고요.</p>
---	---	---	--	--

질문들: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 지하 주차 혹은 지상 주차, 독립채 혹은 연결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83-23번지 : 북측 진입폭이 협소함 (14M)

0 5 10 15 M



질문들: 주변과의 연결, 가로변 풍경, 제약조건들과 새로운 가능성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드러내다...



### 문제 제기: 기획설계 제도화를 통한 디자인 프로세스 전반의 합리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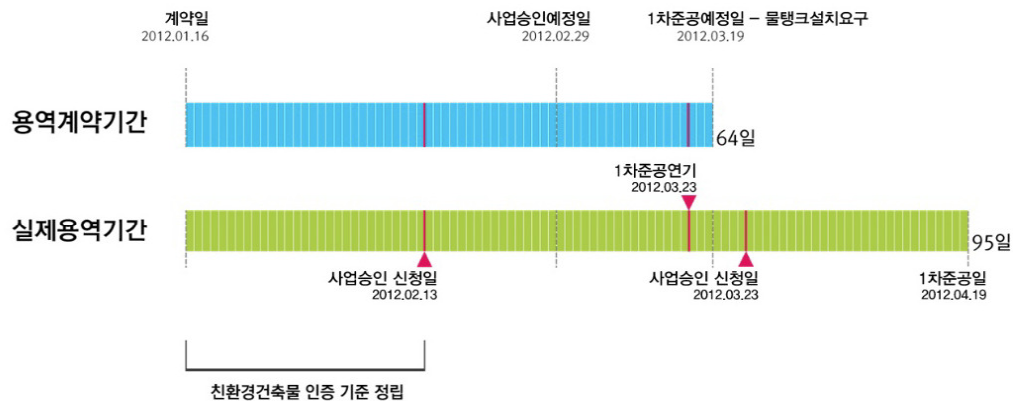


주요 과업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설계용역	2011.12.28			(1단계 준공) 2011.02.29			(2단계 준공) 2011.07.31	
착수 및 준공	용역계약							
기본계획				· 1단계 : 2011.12 ~ 2012.02 (착수일로부터 64일) · 2단계 : 2012.03 ~ 2012.07 (1단계 준공일로부터 150일)				
건축심의	건축심의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사업승인				
실시설계								
및 발주도서작성				공사발주				
공사발주의뢰								
현장지원				준공				

- **기획단계:** 합리적인 스케줄 및 설계기준 필요,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체크 (신청동: 공공청사부지 / 연남동: 진입도로폭 미확보)
- **발주단계:** 충분한 사전검토와 기획, 그리고 합리적인 공모기간 확보, 친환경인증 등 특별업무의 범위와 기준 마련 등이 필요
- **설계단계:** 계획 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단계별 기성 체크와 용역비 지급방식의 합리화 필요  
(유보금제도, 현황측량 등 자료제공,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시공단계:**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특히 설계자에 의한 사후 설계관리업무 (디자인감리) 제도 정착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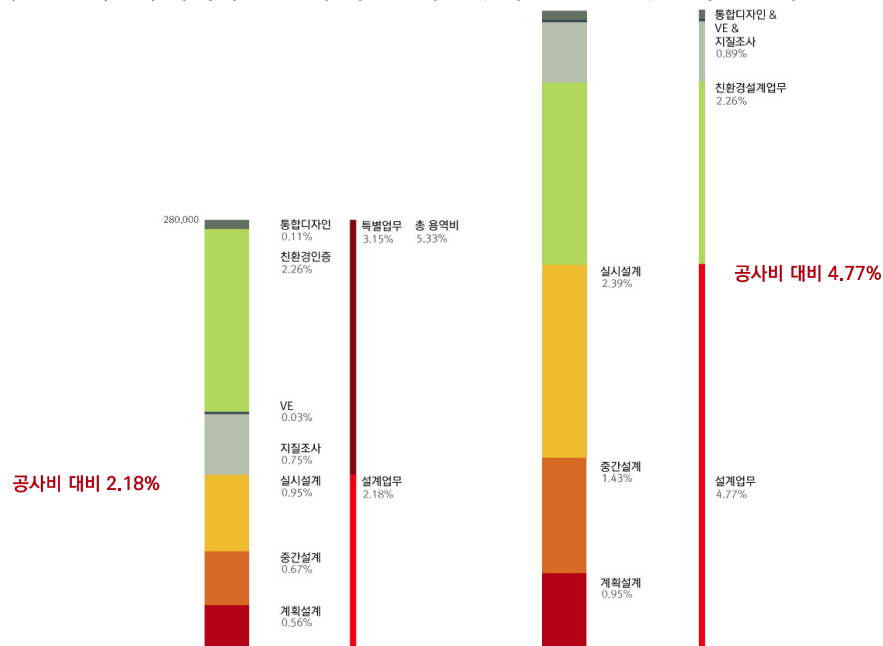


문제 제기: 소잡는 칼로 쥐잡지 말자! 소규모 건축물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프로세스 확립이 필요



- 최소 설계기간 보장이 필요: 문정동의 경우 설계공모기간 10일 / 1차준공기간 64일로 발주되었음.
- 합리적인 기획이 필요: 연구 및 기획 등 기획설계의 제도화,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각종 인증의 주체, 대상, 용역비 등의 합리화
- 소규모 공공프로젝트의 친환경/에너지 관련 합리적 기준 정립이 필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2012.03.01 수정 보완

문제 제기: N분의 1이 아니다! N승의 세심함이 요구되는 공공건축을 위한 토대를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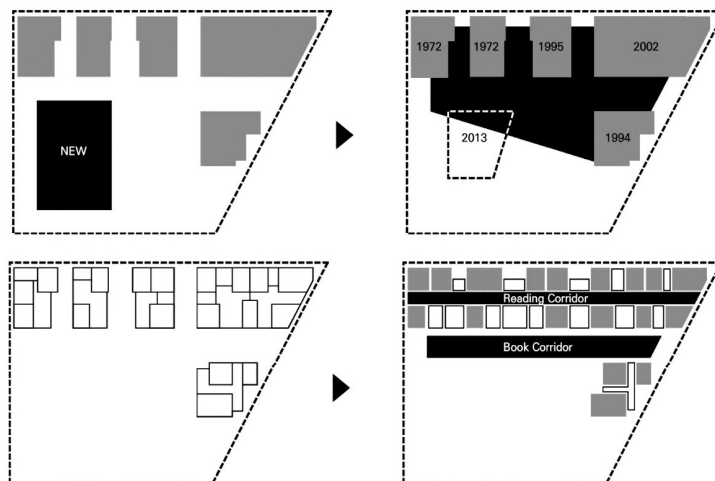
"문정동 보금자리 주택 신축공사" 실제 용역 계약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비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 불합리한 면적단위 정량적 발주방식의 문제점: 커뮤니티 시설을 제외하고 산정되는 세대수 단위-전용면적 기준의 주택설계비
- 통합적 설계를 가로막는 칸막이식 발주와 칸막이식 관리: 토달디자인 전문업체? / 전문분야별 개별 관리지침과 예산 컨트롤
- 지속적인 관리를 가로막는 action-based 설계비 산정에서 time-based 산정방식 도입이 필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 Gusandong library village  
Village Library : 2013.07~2015.08



생각의 그림 ide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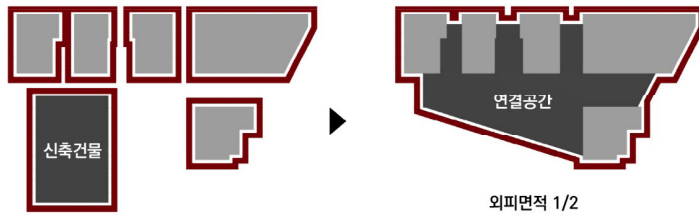
**마을의 기억을 품은 도서관 :** 마을의 일부분인 막다른 골목의 기존 주택들을 도서관으로 계획하는 작업으로 새로 짓기보다는 마을에 있어왔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신축부분의 많은 부분을 기존 공간의 연결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서관을 오가며 마을의 각 시대별 건축물들의 규모, 재료, 양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마을의 기억이 축적되는 마을 박물관이다.

**주민 커뮤니티의 중심 :** 도서관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서 책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이다. 마을 외곽의 공원이나 산위에 위치한 일반적인 공공도서관과 달리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의 한가운데 위치한다. 높은 밀도의 주택가에 마을의 광장역할을 하는 외부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내부에도 작은 방들의 중심에 마을카페를 위치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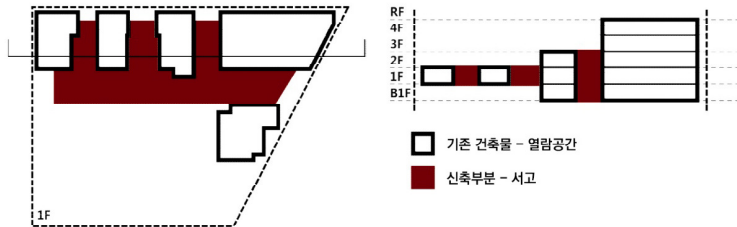
**서가가 된 골목, 열람실이 된 주택 :** 구산동 도서관 마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주택건물, 기존의 골목 등 기존 마을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여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기존 마을의 골목에서 책을 고르고 주택처럼 편안한 방에서 책을 읽는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했다. 덧붙여진 책복도와 일부 벽을 열어 내어 만든 열람복도는 모든 방들을 연결한다.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담을 수 있는 수십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방들의 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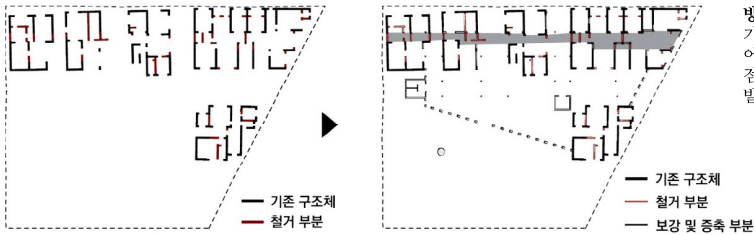
## 생각의 연결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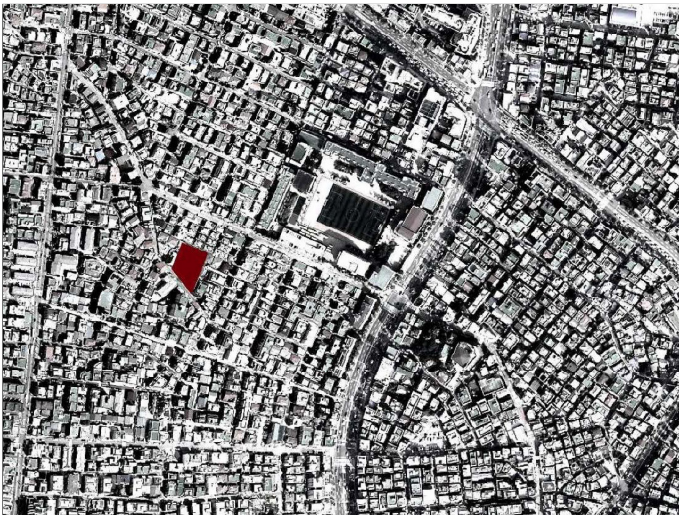
**외피면적 최소화:** 기존 건축물의 외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외벽 재료의 철거 및 재설치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외벽 재료를 내부화하고 외피 면적을 최소화 하여 철거 및 외장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공간에서 각 건축물의 역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경제적 설계방안이다.



**중축부를 책의 복도(서고)로 활용:** 도서관은 하중을 많이 받는 건물 중 하나다. 특히 서고의 경우 일반주택의 두 배 이상의 하중을 고려하므로 기존 건물 부분을 열람실로 활용하고 신축되는 연결 공간들을 서기로 활용한다. 기존 건물의 도서관 기능 전환으로 인한 구조보강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주 진입동선이 서고에서 시작되어 도서관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방단위의 열람실로 기존건물 훼손을 최소화:** 내력벽구조의 기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구조보강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므로 되도록 주택의 방 단위 모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소규모 친밀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 설계의 조건과 방향을 정하는 기획설계의 단계의 중요성: 2012년 9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



구산동 도서관 마을 조성공사 설계용역 제안요청서(2013.5)

### 1. 과업개요

- 가. 사업명 : 구산동 도서관 마을 조성 공사 - 설계용역
-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다. 사업비 : 금165,003천원(부가세포함)
-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 과업목적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 등으로 정보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테마 있는 도서관 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과업범위

- 가. 과업대상
  - 사업명 : 구산동 도서관 마을 조성 공사
  - 사업기간 : 2013. 9 ~ 2014. 12
  - 위치 : 은평구 구산동 17-56초 이 11번지
  - 규모 : 대지 1,572.9㎡ 건물 1,876㎡(신축 730, 리모델링1,146)
  - 공사비 : 4,145,424천원



Serugaku / Akihisa Hirata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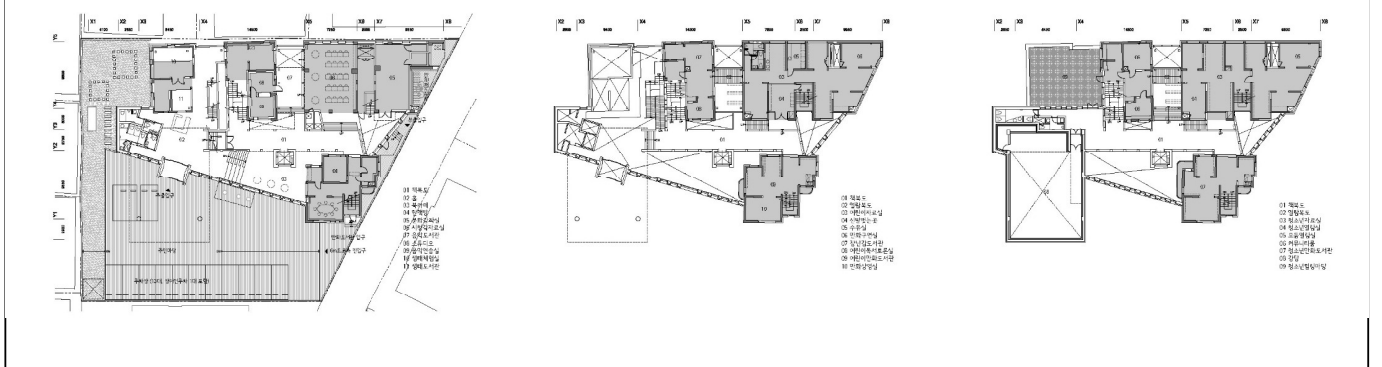
설계: (주)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최재원, 임성진, 신승수) 설계담당: 권미리, 하수경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3길 29-23(구산동 44) 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1,572.9㎡ 건축면적: 860.64㎡ 연면적: 2,550.25㎡ 규모: 지상 5층 주차: 13대 높이: 14.7m 건폐율: 54.72% 용적률: 154.92%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벽돌, 징크패널 내부마감: 목재마루널, 에폭시코팅 구조설계: 터구조 기계·전기설계: (주)한일엔씨 시공: 금강종합건설(주) 설계기간: 2013. 7. ~ 2014. 3. 시공기간: 2014. 4. ~ 2015. 6. 공사비: 약 50억원 건축주: 은평구청

Architect: Design Group OZ (Choi Jaewon, Lim Sangjin, Shin Seungsoo) Design team: Kwon Milee, Ha Sukyung Location: 29-23, Yeonso-ro 13-gil, Eunpyeong-gu, Seoul, Korea Programme: library Site area: 1,572.9m<sup>2</sup> Building area: 860.64m<sup>2</sup> Gross floor area: 2,550.25m<sup>2</sup> Building scope: 5F Parking: 13 Height: 14.7m Building to land ratio: 54.72% Floor area ratio: 154.92%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ing: brick, zinc panel Interior finishing: wood flooring, epoxy finishing Structural engineer: thekujo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 Hanil Mech. Elec. Consultants Construction: Kungang construction company Design period: July 2013 - Mar. 2014 Construction period: Apr. 2014 - June 2015 Client: Eunpyeong-gu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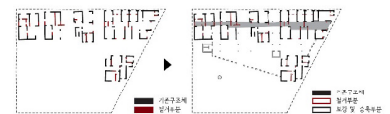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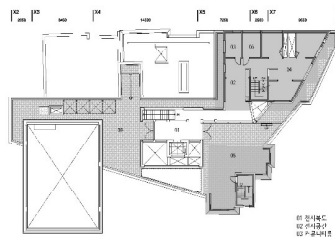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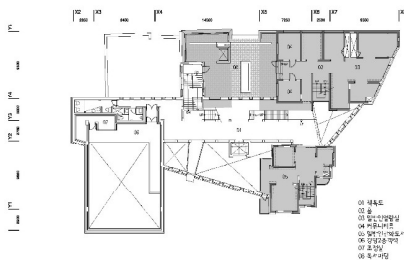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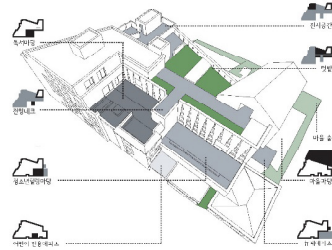
자료제공 디자인그룹오즈 | 사진 황규백(별도표기 외)  
공간 SPACE (201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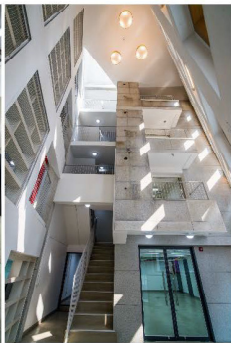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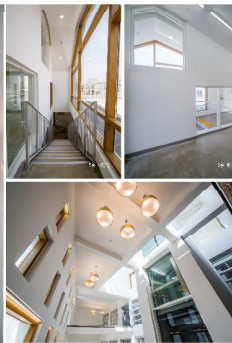
구산동1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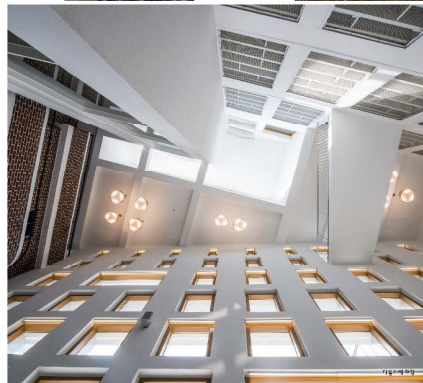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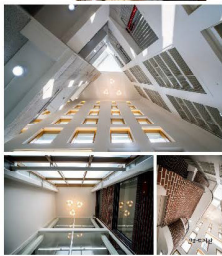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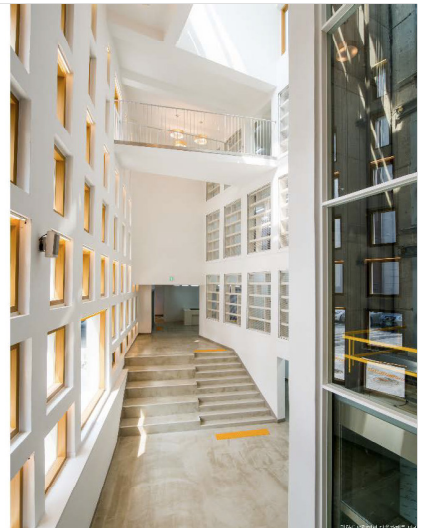
구산동17-55



구산동17-56



2013. 1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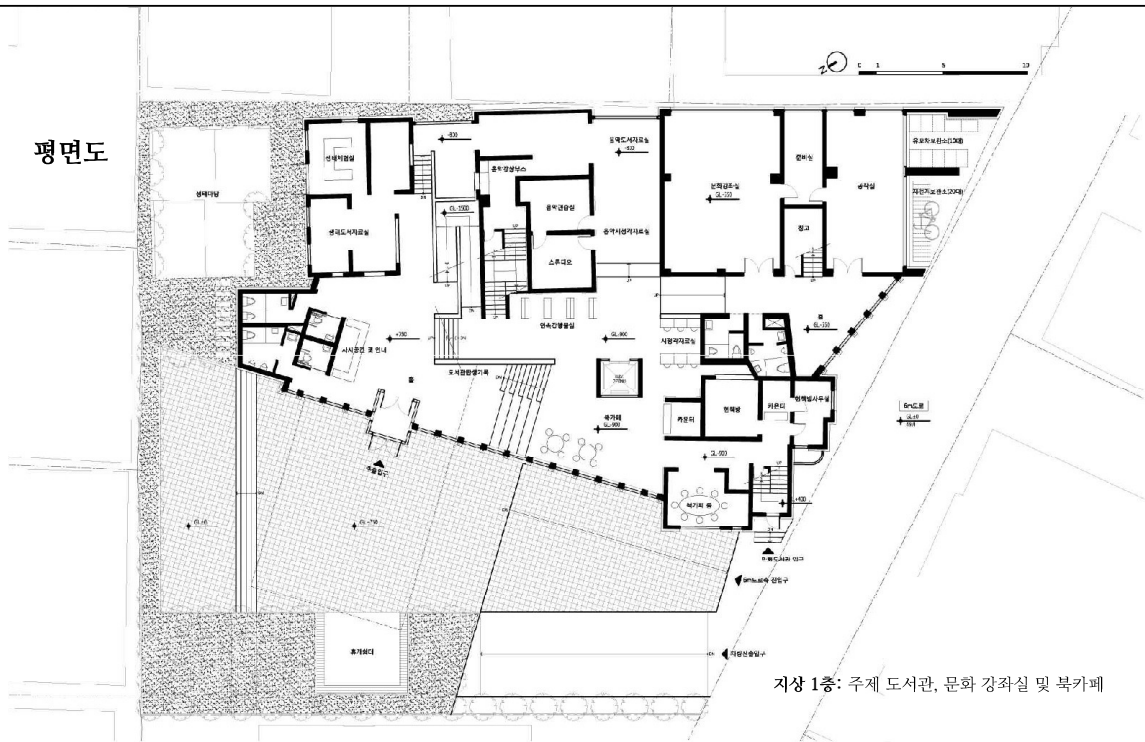


2013. 0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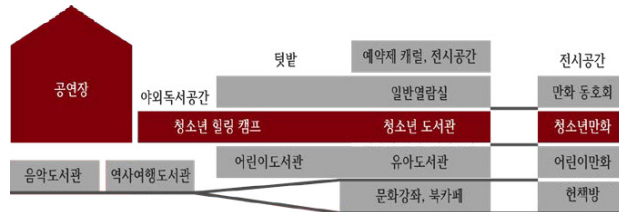




## 평면도



지상 1층: 주제 도서관, 문화 강좌실 및 북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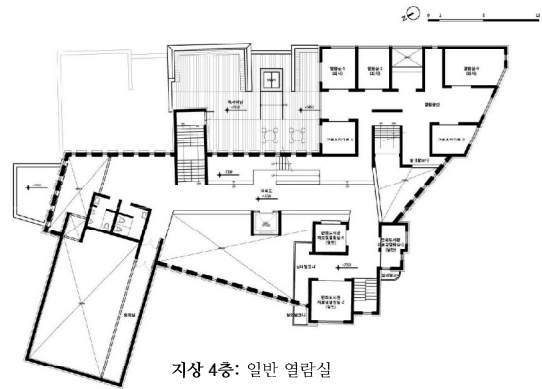


기존 건물을 이용한 주제도서관, 열람실, 만화도서관 그리고 신축된 공연장 등 6개의 동으로 구성된 도서관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층별로 이용자를 구분하였다. 1층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공연장과 연결된 2층은 청소년공간으로 그리고 지하는 북카페 및 문화강좌실을 배치하였다.

## 평면도



지상 2층: 어린이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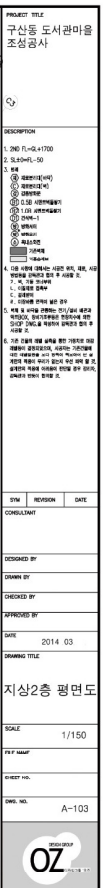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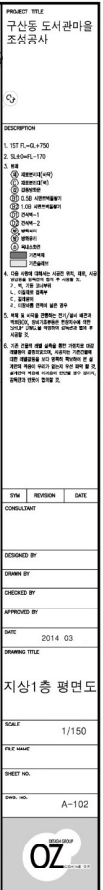
지상 4층: 일반 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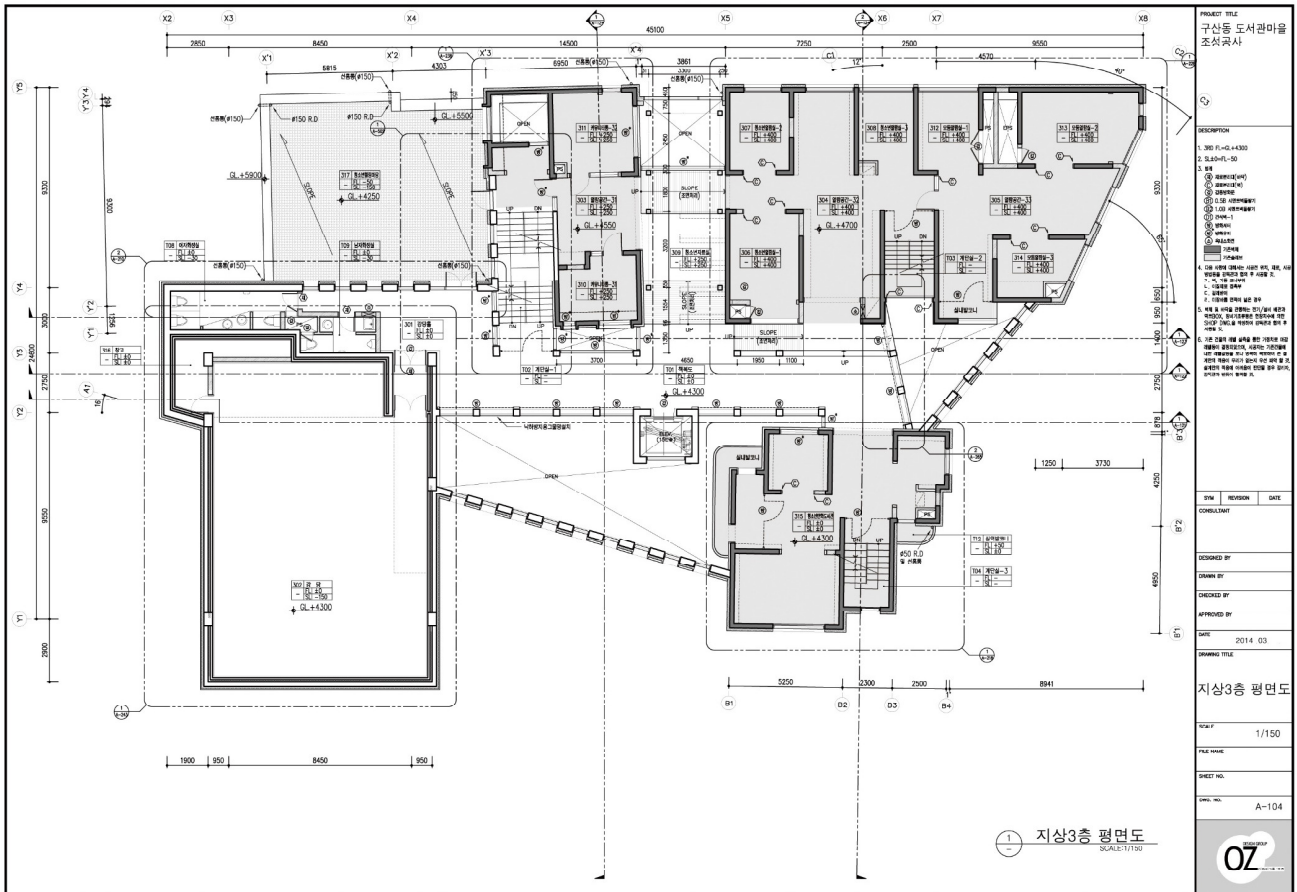
지상 3층: 청소년 힐링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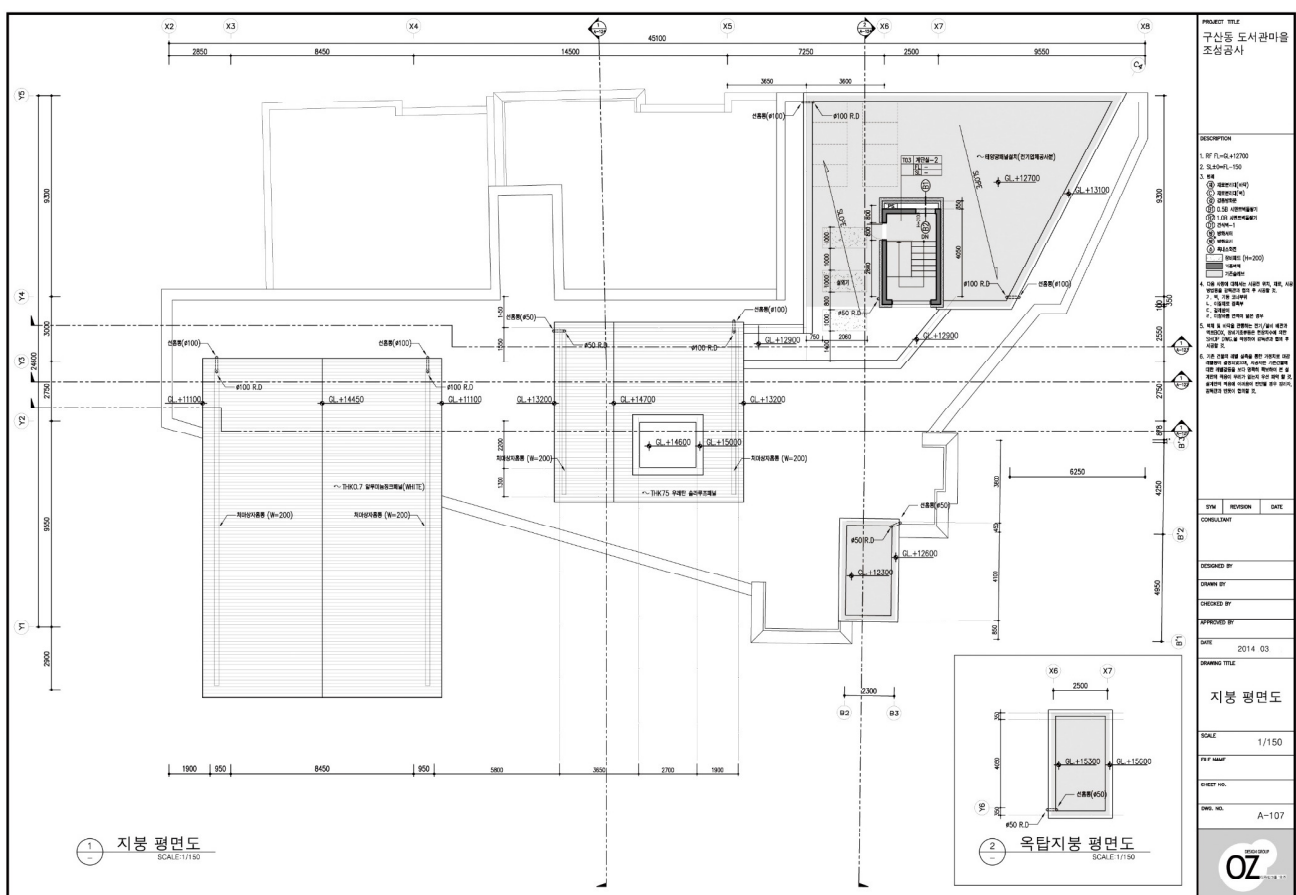


지상 5층: 전시장, 예약제 캐럴, 행정관리실, 옥상텃밭



















## 문제 제기: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인가? 문화집회시설인가?

[표 27] 봉사대상인구수에 의한 공간면적기준 연적 및 이용좌석수

봉사대상인구수	면적 (㎡/1000명)	이용좌석수(석/1000명)		
		일반 이용좌석비율(%)	어린이 이용좌석비율(%)	디지털 이용좌석비율(%)
2만이하	70	45	7.5	15
4만	65	50	6	13
6만	60	53	5.5	11
8만	55	55	5	10
10만	50	57	4.5	9
20만 이상	40	60	3.5	8

- 일반이용좌석: 영속간접형 이용좌석 포함, 귀중도서 및 향토자료 이용좌석 별도.  
- 어린이이용좌석: 유아이용좌석 및 이아기방 별도  
- 표의 이용좌석 비율은 기본 수치이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표 28] 공간구성요소별 면적비율

공간구성요소	면적비율(%)	지역응답관	분관
자료이용부분	일반자료실	35-45	40-50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업무관리부분	보존서고		
	업무관리	10-16	7-14
문화교육부분	전시, 교육, 문화, 학습실 등	8-15	6-10
공용부분	출, ELEV, 계단, 화장실, 휴게실 등	25-30	23-28
기타부분	기계, 전기, 창고 등	6-8	6-8
	합계	100	100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출간 (좌)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연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6년 출간 (우)

- 라키비움(Larchiveum: 도서관과 정보 아카이브, 박물관 복합체)으로 대표되는 다기능적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
- 봉사대상인구에 따라 기계적으로 규모가 산정되는 방식으로부터 지역 특성과 사용자 수요, 운영 방식을 고려한 기획 필요
- 이용자, 설계자, 운영자 간 원활한 의사 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에 반영이 필요함

[참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국·도비 보조율 변화(단위: %)]

구분	2009 이전			2010~2013			2014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40	30	30	20	30	50	20	12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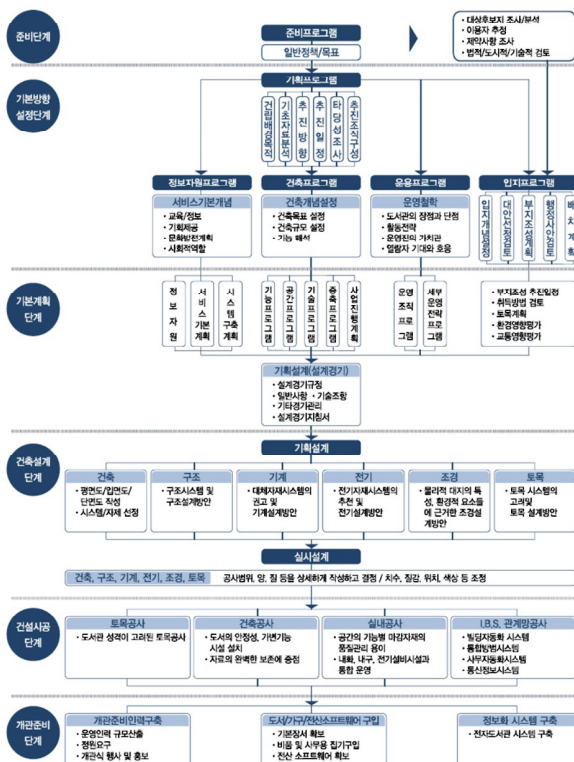
### · 열람실(독서실)이 사라지고 문화교육 기능이 확대되는 경향

- 18개 지자체 중 4개(22.2%) 지자체만 열람실을 계획하고 있음
- 공간구성요소별 면적비율은 대체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3)'의 기준과 유사하나 사전검토 수행 도서관 평균 문화교육부분 면적비율(19.6%)이 기준보다 7~10%정도 높게 나타남
- 건축부 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나 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 센터로서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문화집회시설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용부분 면적 비율은 일부 지자체의 인식부족으로 여전히 최소 기준 수준으로 배분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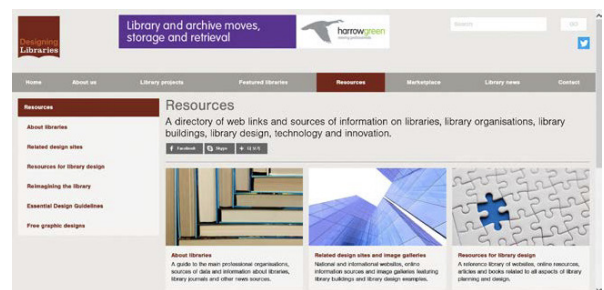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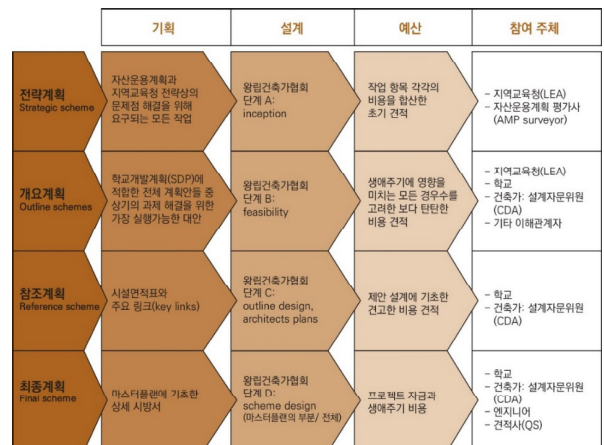
[사전검토 수행 도서관(지방자치단체) 공간구성요소별 면적비율 비교]

공간구성요소	사전검토 수행 도서관 평균	면적비율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기준	분관
자료이용부분	39.6%	35~45%	40~50%
업무관리부분	11.7%	10~16%	7~14%
문화교육부분	19.6%	8~15%	6~10%
공용부분	23.1%	25~30%	23~28%
기타부분	6.6%	6~8%	6~8%

## 문제 제기: 주제와 프로세스를 디자인하자! 리모델링일수록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해진다!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출간 (좌) / 영국의 학교건축 프로세스 중 기획설계 가이드라인 (우상) / [www.designinglibraries.org.uk](http://www.designinglibraries.org.uk) (우하)



고덕강일 2지구 7단지 공공주택 Godeok Gangil Bogeumjari Housing District 2-7  
And Society / Double Street : 2012.12 ~ 진행중



생각의 그림 ide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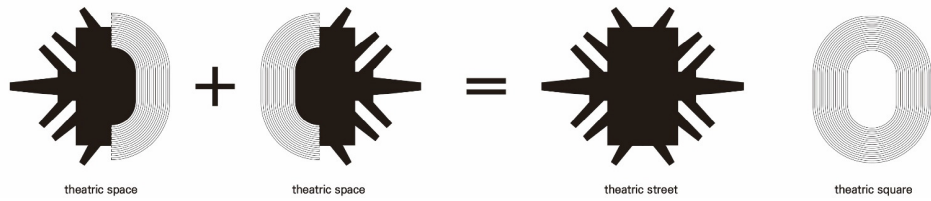


**단지를 연결하는 소셜 커넥터:** 고덕강일 2지구 7단지는 인접 단지들을 연결하고 망월천으로 이어지는 고덕강일 2지구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이 한복판의 중심공간을 2지구 전체의 거대한 오픈 커뮤니티 홀이자 로비로 만든다는 생각에 기초해서 블록 전체를 둘러싸면서 연속되는 중층 주동으로 거대한 중정을 만들고, 인접 단지들과 천변을 연결하고, 타워동과 가로변 중정동을 연결하는 커다란 관문들을 만들어서 닫혀 있지만 열려 있는, 타워동이면서 동시에 판상형인 새로운 유형의 단지과 주동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편, '자전거 도시', '텃밭 도시', '도서관 도시'라는 고덕강일 지구의 비전에 걸맞게 비워진 거대한 중심 녹지공간으로 열린 관문 공간들에 이들 커뮤니티 시설과 생활지원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길 모퉁이에서 자연과 문화, 이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구성 체계를 그리고자 합니다.

**엔드 소사이어티, 더블 스트리트:** 바깥으로는 도시와 자연으로 연결되고 내부로는 오픈 커뮤니티 로비로 연결되는 이 블록은 야누스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야누스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듯 이러한 이중성은 차이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야기시킵니다.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상가,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입체적으로 복합시킨 선관형 진입공간, 도시와 자연을 극적으로 공존시키는 중심 녹지공간, 타워동과 판상형을 직교시켜서 측면을 열고 단지 중심에 공유공간을 집중시킨 구성방식 등이 바로 그러한 이중성의 몇 가지 예들입니다. '이중의 거리'는 창조적인 접속사로 차이를 공존시키는 '그리고의 사회', 혹은 '차이의 공동체'를 만들기위한 건축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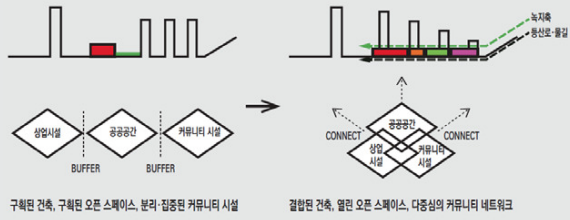
# 생각의 연결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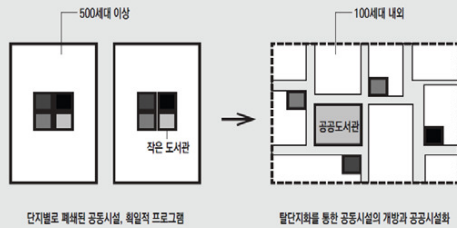


질문들: 차이의 공동체, 새로운 근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주거의 도시화, 공동시설의 도시화

· Banding\_영역,기능,가로가 중첩된 근린지역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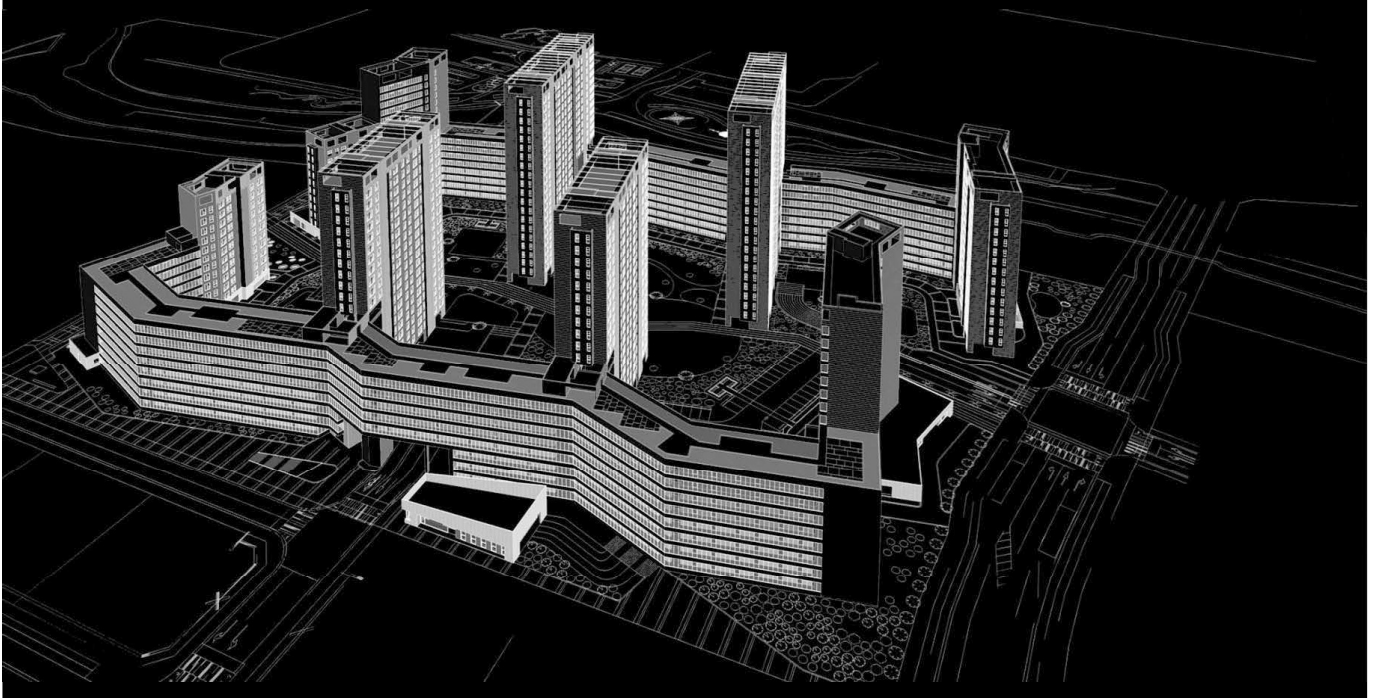


· Disbanding\_탈단지화된 근린지역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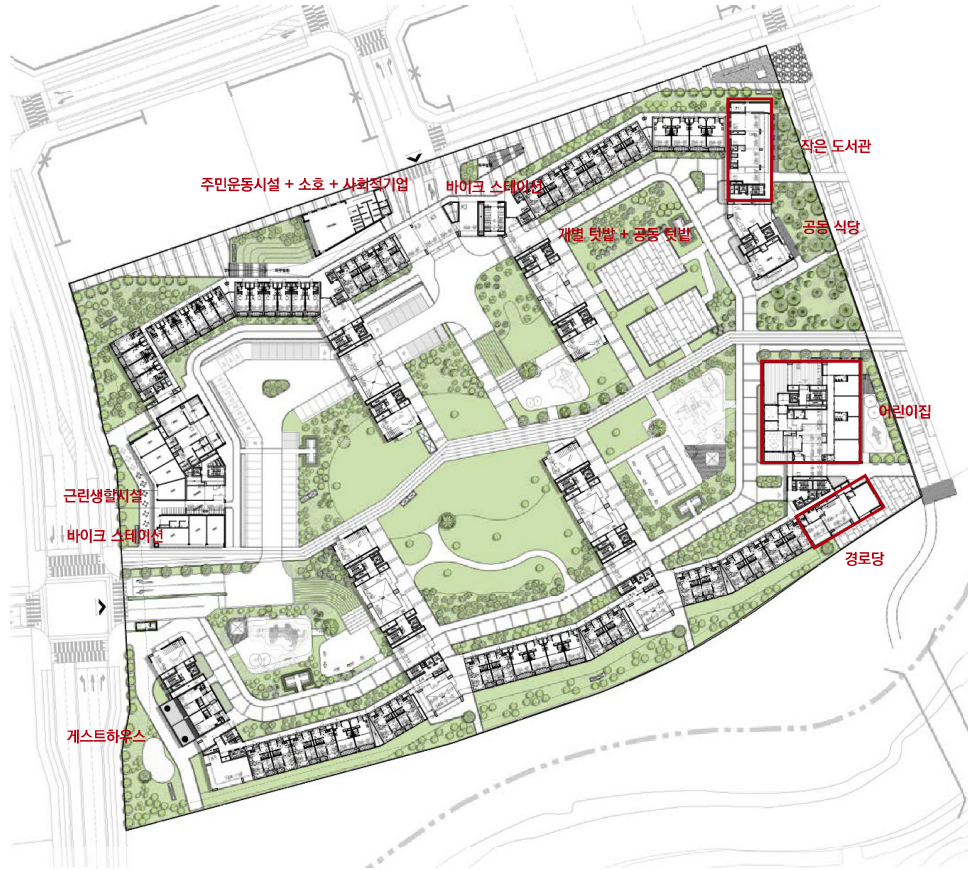
공동주택 + [시장:도서관:학교:의료복지시설]

질문들: 몇 개의 동인가? 2동, 10동? 단위세대(nLDK)와 주동 중심 설계관리의 문제점





## 지상층 평면도: 커뮤니티 로비 / 커뮤니티 홀 / 커뮤니티 숲



## 생활의 차이를 담는 단위세대들 ...



## 문제 제기: 작지 않은, 아파트 작은 도서관 / 주민공동시설을 묻다!

최소 기준: 장서 1,000권 이상 / 열람석 6석 이상 / 면적 33 제곱미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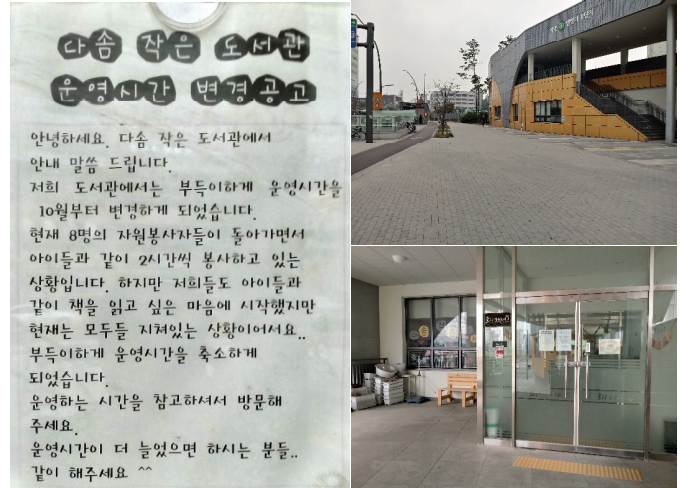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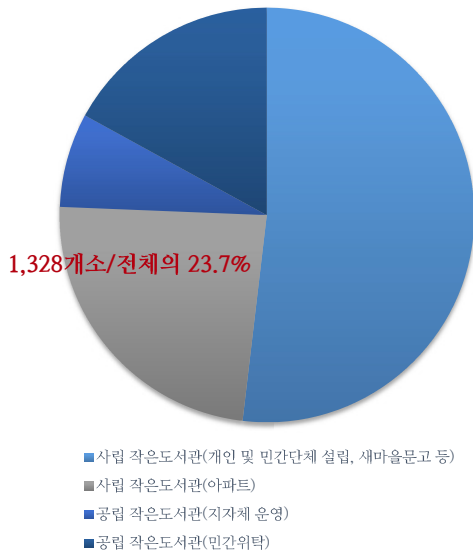
전국 작은 도서관 개수: 5,595 개소 (공립 1,364개소, 사립 4,231개소 : 2015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기준)

전국 작은 도서관 장서수 총합: 5,595 개소 x 5,931권(평균보유장서수) = 약 33,180,000 권

전국 작은 도서관 면적 총합: 5,595 개소 x 105제곱미터(평균전용면적) = 약 587,000 제곱미터: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약 17개**

전국 작은 도서관 열람석 총합: 5,595 개소 x 28.5석(평균열람석수) = 약 159,000 석: **200석 규모 공공도서관 약 800개**

작은도서관 유형별 비율



## 문제 제기: 동수감율의 모순. 평균층수의 모순, 같은 것을 반복할 것인가? 다른 것을 연결할 것인가?



### □ 평균층수제도 설명

#### 1. 적용범위

평균층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나, 주로 아파트가 적용대상에 해당될 것이며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건축물 인·허가추진

#### 2. 산정방법

○ 평균층수 :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 기준면적 : 각 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연적을 모두 합한 연적

-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

· 공공기관의 건축설계 발주계약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대한건축학회 2013.05] 에서 제기된 문제: 2015년도 해당 기준 삭제

[ 표 17 ] \* 예시 2 : ○○지구 '가상적 설계내용' 과 실제 설계안 비교 - 발주기관 : △△공사

구 분		가상적 설계내용	설계공모 당선안
설계 내용	세대 수	830	817
	주거동 수	11	2
	신규 설계 주거동 수	6	2
	반복동 수	5	0
	반복동률	8.5	2
건축설계대가 (천원)	기관 산정방식 적용시(천원)	1,959,000 (100%)	848,000 (43.3%)
	주동면적 변경 반영시(천원)	-	2,705,660 (138%)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8호에 의해 2008년부터 시행해왔던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



## 연결의 디자인을 그리며...

슈퍼마켓처럼 일상적인 것,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 특별하고 친근한 것을 담은 “슈퍼 디자인”  
 내집보다 더 좋은 “도시의 거실”, 도시와 사회로 연결되는 “행위의 박물관”을 담은 “제3의 공간 디자인”  
 N분의 1로 분리된 사회, N포 사회에서 N차원의 사용가치를 갖는 “N승의 디자인”,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으로.



## 연결의 디자인을 그리며...

슈퍼마켓처럼 일상적인 것,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 특별하고 친근한 것을 담은 “슈퍼 디자인”  
 내집보다 더 좋은 “도시의 거실”, 도시와 사회로 연결되는 “행위의 박물관”을 담은 “제3의 공간 디자인”  
 N분의 1로 분리된 사회, N포 사회에서 N차원의 사용가치를 갖는 “N승의 디자인”,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으로.



Rijksmuseum 분관 (2002년) + Airport Library (2010년) / 로테르담 장 폴 고포에 전시 기간중 거리 풍경



